

16세기 日朝交流史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

<p>머리말</p> <p>I. 倭變과 약조</p> <p>II. 三浦의 난 후의 僞使와 對馬 宗氏</p> <p>1. 僞使의 발견(1950~1980년대 전반)</p> <p>2. 僞使 연구의 진전(1980년대 후반~2000년대)</p> <p>III. 日朝무역과 동지나 海域의 변용</p>	<p>IV. 사료와 사료 연구</p> <p>1. 조선 사료</p> <p>2. 일본 사료</p> <p>3. 외교문서</p> <p>맺음말</p>
---	--

머리말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16세기 日朝交流史 연구의 학설적 검토’이다. 우선 ‘16세기 일조교류사’를 어떠한 시간의 폭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조교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인 ‘三浦의 난’(1510년)과 ‘文祿·慶長の 役’(임진왜란, 1592~98)을 그 시기 및 종기라고 하는 것에 異論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삼포의 난(1510년)부터 文祿의 役(1592년)까지의 일조교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관하여 학설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文祿의 役 직전의 僞日本國王使에 의한 일조교섭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면 종래의 16세기 일조교류사 연구에 대해서

- (1) <倭變과 약조>
- (2) <三浦의 난 이후 僞使와 對馬宗氏>
- (3) <日朝무역과 동지나 海域의 변용>
- (4) <사료와 사료연구>

이상 네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검토하고, 약간의 私見을 넣어 가면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I. 倭變과 약조

삼포의 난(1510년) 및 壬申約條(1512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한 것은[中村 1952·1969b]이다. 삼포의 난 이후의 강화교섭의 경과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임신약조의 條文을 복원하고, 이것을 16세기 교린체제의 기본 약조로 평가하였다. 또 임신약조는 “對馬의 文引制를 원래대로 인정하여 통교검찰의 기초로” 삼고 있으며, “쓰시마 도주는 이를 거점으로 특수권익의 부활을 도모하고, 여전히 교린체제를 바탕으로 그 지위를 존속하고 회복 강화해 가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 뒤, “日本國王使 혹은 大內殿·小二殿 등 처우가 유리한 送使를 이용하여 선단의 준비나 무역품의 조달 등을 행하고, 새로운 정세에 적응한 통교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16세기에 있어서 통교관계 변용의 원인의 하나로 임신약조가 평가된 것이다.

삼포의 난·임신약조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는 우선 삼포의 난 발생요인을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기에 걸친 조선왕조의 광물(금·동) 수입제한에서 찾았던 [長 1997] [荒木 2003], 발생 당시에 서울 東平館에 체재하고 있던 일본인 통교자의 동향에 주목했던 [村井 1995b]가 있다. 또 임신약조로 인하여 항만도시 삼포가 소멸한 뒤의 浦所에 대해서는 留館倭人과 조선인의 교류와 알력을 지적한 [村井 1990·1993b·1999] [長 1993] [崔 2003], 부산포의 재개항 연대를 1521년으로 보는 정설을 부정하고 1517년설을 제시한 [長 2006]이 있다.

蛇梁의 변(1544년) 발생 이후 <絶倭論>의 대두 및 丁未約條(1547년)의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명확히 한 것은 [中村 1969b]이다. 정미약조에 따른 薺浦의 폐항에 대해서는 [崔 2003]이 왜인의 근거지가 되었던 加德島와 관련시켜서 논하고 있다. 임신·정미약조에서는 많은 深處倭 名義 통교권이 정지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명의를 대해서는 ‘임신약조가 성립한 당초로 되돌아가 深處倭 圖書의 접대가 거부된 것을 復元的으로 考定하는 일은 사료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中村 1969b]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사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것을 해명한 것이 [長 2007]인데, 對馬 宗氏의 통교권 부활 공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미약조 성립 이후 對馬 宗氏는 해적(후

기왜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조선측의 환심을 사면서 통교권 부활교섭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적 정보의 제공을 검토한 [森 1951] [高橋 1989], 丁未約條(1547년)부터 達梁倭變(1555년)·丁巳約條(1557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명확히 한 [中村 1969b], 僞日本國王使에 의한 통교권 부활교섭을 검토한 [田代·米谷 1995] [米谷 1997a] 이 있다.

16세기의 기본적인 약조는 壬申·丁未·丁巳의 세 약조인데, 임신·정미약조와 정사약조는 성질을 달리한다. 임신·정미약조는 ‘倭變’(삼포의 난·사랑왜변) 후 對日斷交 및 강화과정에서 도입된 통교제한 강화책이지만, 정사약조는 對馬 宗氏가 가져 온 해적 정보의 신빙성이 達梁倭變(후기왜구에 의한 습격사건)의 발생으로 증명된 사실을 받아들여서 도입된 통교제한 완화책이다. 게다가 정사약조는 조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歲遣船 5척이 부활된 것을 겨우 알 수 있는데 불과하다[佐伯 2004]. 과연 정사년(1557년)의 협정을 임신·정미약조와 병렬적으로 ‘약조’로 보아도 될 것인가(中村 1969b)는 “그 성립연대에서 이것을 정사약조로 통칭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1523년에도 임신약조의 세건선 규정이 25척에서 30척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때의 협정을 ‘약조’라고 부르지는 않으며, 임신약조의 부분 개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정사년의 협정은 정미약조의 부분 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6세기의 기본약조를 임신·정미약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對馬-조선간의 협정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 없지만, 이 중 어떤 것을 ‘약조’로 부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사료 용어와 연구 개념)를 고려해야 한다. 또 임신·정미약조라고 하면 어찌됐든 통교권의 축소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서 일본인의 생산·유통활동 및 조선인과의 교류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며 더욱 더 검토가 필요하다.

Ⅱ. 삼포의 난 후의 僞使와 對馬 宗氏

1. 僞使의 발견(1950~1980년대 전반)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세 日朝무역에 관하여 개설한 [黑田 1948]은 15세기 전반의 쓰시마 도주 문인제도의 확립을 僞使 발생의 계기로 간주하고, “告身과 圖書는 점차 對馬로 집약되고, 受職·受圖書人이 지닌 무역상의 특권은 告身과 圖書의 소재에 따라 점점

쓰시마인의 손으로 옮겨가고, 그렇지 않은 자도 연고를 칭하여 宗氏와 종속관계를 맺었으며, 실질적으로 圖書를 사용하고, 告身の 은혜를 입은 자는 모두 宗氏의 일족이거나 그 家臣, 아니면 對馬에 거주하는 상인이 되었으며, 무역의 이익은 모두 對馬-島가 독점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16세기 후반 對馬의 기록인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이하 <書契覺>)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보인다. 논증이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연구동향에 비추어 생각하면, 15세기 전반使國次16세기 후반에 걸친 對馬宗氏의 僞使과견 체제의 존재를 간과한 탁월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田中 1954]는 <書契覺>의 기재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宗義調가 ‘무역권의 對馬 집중’의 중심 인물이며, 對馬에 집중된 무역권이 知行 대상이 되어 宗氏-家臣 간에 순환하고 있었다는 것(‘무역권의 이동’)을 지적했다. 그러나 ‘무역권의 對馬 집중’의 요인을 삼포의 난 이후 조선왕조의 통교제한 강화와 동지나 해역의 변용에서 구하고 있어, [黑田 1948]과의 견해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 즉 ‘무역권의 對馬 집중’의 시기를 15세기 전반으로 볼 것인가[黑田 1948], 16세기 초기로 볼 것인가[田中 1954] 하는 문제이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 견해의 차이가 오랫동안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통교사절의 진위 판정은 개별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강하게 의식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후술).

그러면 僞使를 검출한 연구에 대해서 정리해 두고자 한다.

日本國王使·巨酋使

16세기 후반의 ‘右武衛殿使’를 장군 足利義昭의 명의를 이용한 織田信長の 使送으로 간주하여, 信長の 적극적인 대외지향의 연장선상에서 豊臣秀吉의 대륙침공을 평가했던 기존의 설을 비판하고, ‘右武衛殿使’는 澁川氏 명의의 使送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 [中村 1959]이다. 이를 바탕으로 “對馬에서 통교권의 취득을 위해 가공의 인물을 상정하고, 右武衛殿을 가탁하여 사자를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한다”고 하며 僞巨酋使의 존재를 시사하는 한편, “일본국왕의 添書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 일본국왕으로서 조선과 통교하고 있던 足利義昭의 소개장도 지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어, 이 시기의 일본국왕사를 眞使로 간주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된다. 그러나 [中村 1969b]에서는 對馬의 사료인 <宗左衛門大夫覺書>의 검토에 근거하여 1511년의 일본국왕사를 “對馬에서 준비하여 왕래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 후의 국왕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해를

보이고 있다.

諸曾使

15·16세기 筑前 宗像氏의 조선통교를 논한 [小島 1965]는 16세기 ‘宗像氏助’ 명의의 통교에 대해서 <書契覺>의 분석을 기초로 “(합계 11회의 통교는-筆者 注) 모두 氏助의 도장을 사용하여 그 명의로 인한 통교무역선이 宗氏의 손에 의해 파견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對馬 宗氏에 의존하는 정도의 강하고 새로운 방식의 조선과의 통교무역 전개”로 보고, “이 통교무역의 주체가 바로 大宮司氏貞이라고 추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실재하는 ‘氏貞’과 통교명의인 ‘氏助’와의 차이는 문제삼지 않았다.

한편 肥前の ‘田平源兼’ 명의의 통교를 검토한 [長 1977]은 <書契覺> 등의 분석에 기초하여 “源兼은 가공의 인물이며, 對馬에서 과거 田平氏의 조선통교 실적에 주목하여 가공으로 만들어 낸 명”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통교명의와 실재하는 人名의 상이로 僞使를 판단한 최초의 연구로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본 것처럼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연구에서 ‘무역권의 對馬 집중’론이라는 위사 연구의 맹아가 보이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었던 <書契覺>에 실린 통교명의의 이해를 둘러싸고 對馬 단독의 위사통교로 보는 견해 및 본래의 통교명의인과의 협동에 근거한 통교로 보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또 ‘위사’라는 용어·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田村 1972]로 파악되는데, 그 분석대상은 14세기 말~15세기 전반의 위사이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의 연구사에 있어서는 15세기 전반~16세기 후반의 위사가 ‘위사’로 불린 적은 없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2. 僞使 연구의 진전(1980년대후반~2000년대)

1980년대에 ‘환지나해 지역’론 [村井 1985]에 기초를 둔 연구가 활성화되어, ‘무역권의 對馬 집중’ 이전의(15세기~16세기 초두) 다양한 통교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가운데 위사의 존재가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위사를 검출한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日本國王使

[村井 1993a]은 삼포의 난 이후의 일본국왕사를 분석하고 이것을 宗氏에 의한 위사로

판단했다. 그때까지는 삼포의 난 후의 일본국왕사의 진위를 둘러싼 견해에 동요가 있었지만[中村 1959·1969b], 여기에 이르러서 명확하게 위사로 보게 되었던 것이다. 또 [村井 1987]은 15세기 후반의 琉球國王使와 夷千島王使를 ‘위사’로 간주하고, 이것을 ‘倭人海商’이 무역이윤을 획득하려고 했던 위장공작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村井 1993a]의 전체가 된 논고이다.

또한 [田代·米谷 1995]에서 宗家舊藏의 위조 ‘德有隣’印이 소개됨으로써 僞國王使의 존재는 더욱 확실해졌다. 그리고 僞國王使의 발생 요인을 ‘明應의 정변’(1492년)으로 인한 장군 권력의 분열에서 찾은 것이 [橋本 1998]이며, 僞國王使의 파견에 필수인 ‘牙符’(상아로 만든 通交資格證明札)가 西國大名(大內氏·大友氏·毛利氏) 휘하에 보관되고 있으며, 宗氏は 그들에게서 牙符를 차용하여 僞國王使를 파견했던 것이 명확해졌다. 더구나 對馬 宗氏가 深處倭 名義 통교권의 부활교섭을 위하여 僞國王使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米谷 1997a], 僞國王使의 正使를 맡는 동시에 국서 위조에도 관여했던 禪僧에 대하여 논한[伊藤 1999a·1999b·2002b], 豊臣政權 아래에서 위조국서의 원본을 조사했던 [伊藤 2002c]도 있다.

巨酋使

삼포의 난 이후 巨酋使 레벨의 위사를 망라해서 검토한 연구는 없지만, 15세기 단계의 거추사 거의 모두가 위사라는 [橋本 1997]의 지적을 인용하면, 그 대부분이 위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서 [米谷 1997a·1998b]은 澁川氏 명의의 위사로 조선에 도항했던 승려 天荊의 사행록 분석을 토대로 위사의 활동 실태를 명확히 하고 있다.

諸酋使

삼포의 난 이후의 諸酋使 레벨, 즉 深處倭의 통교사절의 진위를 둘러싸고 [長 1982]이 <書契覺>에 보이는 壺岐의 ‘牧山正’ 명의의 통교권익의 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宗氏·塩津留氏와 牧山氏 사이에 임대계약이 존재했던 것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통교명의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제삼자(宗氏)에 의한 위사통교 외에, 통교명의인(牧山氏)과 대리인(宗氏·塩津留氏)의 계약에 기초한 위사통교가 존재했던 것이 밝혀졌다. 후자의 케이스를 어디까지 보편화할 수 있는가는 사료적 제약으로 인하여 판단하기 어렵지만, [小島 1965]와 같은 해석도 성립할 여지가 남아 있다.

그 후 [佐伯 1994]은 宗像氏 명의의 통교사절을 위사로 간주했고, [増田 1990] [關

1991]은 島津氏·宇久氏 명의의 통교사절을 眞使로 보았다. 이처럼 진위 판정에는 여전히 동요가 보이지만, [田代·米谷 1995]에서 宗家舊藏의 圖書·木印이 소개되어, 對馬 宗氏が 深處倭 통교권을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대한 물적증거가 되었다. 또 [米谷 1997a]은 宗氏が 僞國王使를 이용하여 深處倭 명의 통교권을 입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15세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巨酋使 및 세조대의 瑞祥祝賀使·宗貞國請使(합계 82使)의 거의 대부분이 위사로 판단되는 등[橋本 1997] [長 2002b], 통교사절의 진위 판정이 엄밀해진 가운데 1450년대 이후의 深處倭 명의의 통교사절 대부분이 위사였다는 점도 분명해졌다[長 2002b·c] [佐伯 외 2006]. 일찍이 [黒田 1971]은 <書契覺>에 기재된 통교명의를 <海東諸國紀>(1471년)에 기재된 통교명의를 계승한 것임을 지적했는데, 선행명의·후계명의 모두가 對馬에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¹⁾

이처럼 ‘무역권의 對馬 집중’의 시기가 14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확실해졌고, 그러한 상황이 倭變과 약조(삼포의 난·사랑왜변과 임신·정미약조)에 의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16세기 말까지 지속됐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예를 들면 [松尾 2004]가 宇久氏 명의의 통교사절이 眞使에서 僞使로 轉化했다고 지적했듯이, 그때까지 眞使로 간주되던 통교사절도 僞使로 판정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위사 연구의 심화 속에서 단순한 통교사절의 개별적인 진위 판정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되었다. 위사 연구를 포함한 중세 일조교류사상의 재구축, 혹은 위사 연구의 동아시아 통교권 레벨로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으며 [伊藤 2005][橋本 2005], 전자에 대해서는 15~16세기의 ‘무역권의 對馬 집중’의 발생과 전개를 宗氏 領國의 실상과 관련지어 설명한 [荒木 2007]이 있다.

3. 僞使의 개념

여기서 ‘위사’라고 하는 용어·개념에 대하여 확인해 두고자 한다. 처음으로 ‘위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田村 1972]은 그 개념을 “무역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통교를 허가받은 對馬·壹岐 등의 중소 토호와 대호족의 명의를 속이고 通商에 종사했던 상인단”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14세기말~15세기 전반의 위사에 적용한 개념구

1) 黒田省三씨는 1940년대의 단계에 이미 문인제도의 도입이 宗氏에 의한 위사과건의 계기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黒田 1948]. 黒田씨가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海東諸國紀>에 기재된 통교명의로와 <書契覺>에 기재된 통교명의로가 모두 宗氏에 의해 이용되고 있었던 것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정이며, 17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對馬 宗氏が 관여하는 형태의 위사까지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橋本 2005]은 “어떤 인간(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라도 좋다)의 명의를 사칭해서 제3자가 외교사절을 꾸며 내고, 외국과 통교하여 무역이윤을 획득하는 현상·존재”라고 하며, 무역이윤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강조한다. 물론 위사의 대부분은 이 설명으로 충분하지만, 예를 들어 16세기 말~17세기 초의 僞國王使처럼 외교교섭에 비중을 둔 위사까지 포괄할 수는 없다. [伊藤 2005]은 통교사절의 유형화를 시도하여 ‘I 眞使, II 眞使便乘型, III 請負通交型, IV 名義借通交型, V 名義讓渡通交型, VI 通交名義詐稱型, VII 有力者名義詐稱型, VIII 架空名義詐稱型 IX 架空國家詐稱型’의 9가지 유형을 제시했으며, 이 중 V~IX형이 위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III·IV형은 진위를 판정하기 어려운 그레이존(gray zone)이며, 통교명의인과 통교사절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 유무를 실증하는 것은 사료적 제약으로 인하여 곤란하다.

이처럼 ‘위사’의 개념화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종래의 연구사에 있어서 위사의 판정기준으로는

(1) 제삼자가 통교명의인의 양해 없이 파견한 통교사절

(2) 비록 통교명의인의 양해가 있어도 통교제도의 이념에 반하여 파견된 통교사절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은 일본측의 위사파견 주체 및 통교명의인측의 관점, (2)는 조선왕조측의 관점에서 본 위사이다. (2)의 구체적인 예로는 牧山氏 명의의 통교를 들 수 있다. 牧山氏 명의의 통교권에 관해서는 宗氏·塩津留氏와 牧山氏 사이에 임대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1)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통교명의인의 관하에 소속되지 않는 제삼자’²⁾에게 통교권이 대여되는 사태는 조선왕조가 설정한 통교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사로 판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 (2) 모두 ‘위사’로 개념을 규정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2)에 대해서는 ‘위사’라는 용어의 뉘앙스에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도 부정할 수 없다. ‘위사’의 이해에 관한 연구자 간에 미묘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이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위사’라는 용어·개념의 사용 및 해석에 대

2) 조선왕조가 설정한 서계제도·수도서제도·세건선제도는 불특정다수의 일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쇄도하여 통교해 오는 것을 제한하고, 그들을 특정 소수의 통교명의인의 통교사절이라는 형태로 來航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쓰시마 도주 세건선(宗氏명의에 의한 연간 50회의 통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宗氏 家臣이 실질적인 통교주체가 되고 있으나, 이것은 도주 세건선제도의 도입에 임하여 조선왕조가 미리 예상했던 사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사로 간주할 수는 없다. 즉, 통교명의인이 管下の 사람들에게 통교권의 행사를 대행시키는 것은 조선왕조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관하에 소속되지 않은 제삼자’가 통교권의 행사를 대행하는 것은 상정외의 사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해서는 신중을 요한다.

16세기에는 거주지를 사칭하고 조선의 관직을 받은 對馬의 受職人이 다수 보인다[荒木 2007].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직제도에 있어서는 수직인 본인의 조선 도항이 의무이기 때문에 통교사절의 형태를 취하지 않은 ‘僞受職人’을 ‘위사’로 표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을 포괄적으로 ‘僞裝通交’로 부르고, 그 안의 유형으로서 ‘위사’와 ‘僞受職人’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日朝무역과 동지나 해역의 변용

16세기의 日朝무역에서 특징적인 事象은 일본은의 수출이며, 灰吹法の 전래, 石見銀山の 생산 확대, 일본은의 해외 수출, 한반도의 은 유통 등을 논한 [小葉田 1932a] [村井 1996] [大西 2002] [秋田 2007]이 있다. 그 밖에 금·동·향료·면포·매의 수출입에 관하여 설명한 [小葉田 1932a·b] [關 1992] [金 1997] [田中 1977]이 있다. 무역상인론으로는 博多의 豪商 島井宗室을 논한 [田中 1961·1964], 對馬府中 町人(古 60인·新 60인)의 계보관계를 명확히 밝힌 [田代 1981], 對馬 무역상인의 대부분이 地侍層이라는 것을 지적한 [荒木 2005]가 있다. 또 禪僧의 사행록을 근거로 무역의 구체적 양상을 밝힌 [米谷 1998a]도 있다.

日朝무역사 연구는 15세기에 집중되고, 16세기를 대상으로 한 것은 드물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의 일본관계 기사가 16세기가 되면 격감한다는 사료적 제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16세기 日朝무역사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료의 博搜와 철저한 분석 및 방법론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15세기와 17세기의 비교 검토도 생각할 수 있지만, 16세기에 특유한 문제로서 후기왜구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6세기의 日朝교류와 후기왜구의 관계를 논한 것으로 특히 주목되는 것이 [高橋 1989]이며, “조선무역권의 對馬로의 집중은 확실히 對馬의 이익을 증대시켰고, 對馬·경상도 남해안 사이 해역의 배타성을 높였”지만, “고립이 심화되고, 활동이 그 해역으로 봉쇄”되었으며, “明人海商에 의해 활성화되었던 해상교통의 변동에 대해서도 對馬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米谷 2003]은 “왜구세력의 활동으로 수세에 처한 對馬는 조선교역에 있어서 자기의 권익을 사수하기 위하여 그 폐쇄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거나, “博多-對馬-조선 라인은 왜구

적 세계로부터 애써 차단하고 고립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무역권의 對馬 집중’은 16세기 중엽 동지나 해역의 변용과 관련지어 논했고, 對馬는 기득권익을 고집해 폐쇄성·배타성을 굳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역권의 對馬 집중’이 145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16세기 중엽의 동지나 해역의 변용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되어 버린다. 다만 [高橋 1989]의 “(安藝大願寺僧尊海의 조선 도항은 - 筆者注) 對馬島 밖에서 독자적으로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얼마나 곤란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통상의 조선무역이 선박 운행을 포함하여 거의 對馬島民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물건과는 달리 사람·선박의 이동에 관해서 對馬는 폐쇄적으로 되었던 것이다”는 지적은 중요하다. 어디까지나 통교무역의 창구가 對馬로 한정되어 日朝 간에 있어서 사람·물건·정보의 이동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며, 對馬의 사회가 동지나 해역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던 셈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對馬-博多 라인의 폐쇄성·타성을 생각하는데, 일본 중세 상인의 ‘배타적 영업권(나와바리)’론 [櫻井 1996]이 참고가 되겠다. ‘무역권의 對馬 집중’은 宗氏領國의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지만 [荒木 2007], 對馬상인 및 博多상인의 배타적 영업권 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걸쳐 宗氏보다 앞서 무역상인들이 위사통교를 행하고 있었다는 점 [田村 1972]에서 이 단계에서 이미 상인사회의 레벨에서는 ‘위사통교권의 집적(무역권의 집중)=조선무역업의 배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1440년대 이후, 宗氏가 심처왜 명의 통교권의 집적을 계획하여 문인제도를 수단으로써 상인사회에 축적된 위사통교권을 자기 체제안으로 흡수한 것으로 ‘무역권의 대마집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얼마간의 배타적 영업권이 병존하였고, 항만도시 博多나 對馬府中이 이들을 결부시킨 점점인 동시에 필터로써도 기능하였으며, 그 밖의 영업권으로부터 사람·물건·정보의 유입을 선택적으로 수용·배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무역권의 對馬 집중’에 따른 對馬-博多 라인의 폐쇄성·배타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일본중세 상인의 상업관행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日朝교류의 고립성·폐쇄성론의 배경에는 조선왕조의 관리무역(공무역·사무역)을 폐쇄적으로 간주하고, 동지나해의 자유무역(밀무역)을 개방적으로 보는 도식이 내재하고 있다. 이 도식에 있어서는 동지나해역의 자유무역의 개방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조선왕조의 관리무역은 구태의연하고 폐쇄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의 관리무역이 상당한 빈도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대한 의의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시대·지역을 달리하는 연구이지만 해상과 국가와의 관계를 논한 [山内 2003] [榎本 2007]에 의하면 해상에 있어서 국가의 관리무역은 안전성·확실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일정한 메리트가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다른 시대·지역의 무역 실상을 참고하면서³⁾ 16세기 日朝 간의 관리무역을 단순히 동지나해역의 자유무역과의 대립이라는 도식으로 파악한 종래의 평가를 재검토하고, 총체적인 동아시아의 무역 네트워크 속에서 양자를 구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IV. 사료와 사료 연구

1. 조선 사료

조선측의 기본사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왕조실록》(중종·인종·명종·선조실록·선조수정실록)이지만, 16세기의 일본관계 기사는 15세기와 비교하여 극히 간략하게 되어 있다[孫 2002]. 게다가 ‘무역권의 對馬 집중’에 수반하여 조선에서 입수한 일본정보는 對馬를 경유한 것이 대부분이며, 위사의 파견은 물론 다양한 국면에 있어서 宗氏는 정보를 조작하고 있었다[森 1951] [米谷 1997b].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의 일본관계 기사는 질과 양 모두 한계가 있으며, 그 밖의 기록류(眉巖日記草 등)·편찬사료(政事撮要 등)·문집사료를 유효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중에서 문집사료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韓國歷代文集叢書》 《韓國文集叢刊》이 간행되어 이용이 용이해졌지만, 아직도 유효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다만 문집사료에 보이는 한시문의 응수를 논한 [村井 1995a], 동경대학사료편찬소 소장 <일본관계조선사료>(문집사료의 발췌록)를 소개한 [米谷 1998b], 《한국문집총간》에서 일본관계사료를 추출한 [須田 2007][佐伯 2008]이 있다.

3) 日朝무역사 연구와 타 분야의 무역사 연구에서는 때때로 ‘공무역’ ‘사무역’ ‘밀무역’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검토 시에 주의를 요한다.

2. 일본 사료

16세기 日朝교류를 보여주는 일본 사료는 15세기보다도 풍부하다. 이것은 조선측 사료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며, 조선 사료와 일본 사료를 조합하여 상호 보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우선 對馬사료에 대해서는 ① 宗家文書(혹은 對馬藩 사료) ② 宗氏 家臣의 家文書, ③ 禪僧 관계 사료로 나눌 수 있다.

宗家文書 중에는 古文書[武田 1926][佐伯 2000], 古文書集(<大永享祿之比御狀并書狀跡付>[田中 1976], <諸家引着>[西村 1984]), 古記録(<宗左衛門大夫覺書>,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田中 1955][中村 1969a]), 宗家判物寫(《長崎縣史》 사료편 1), 근세 편찬물(《朝鮮通交大紀》[田中·田代 1978], 《分類紀事大綱》 등)이 있다.

宗氏 家臣의 家文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宗家判物寫에 수록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원문서도 많다. 이들에 대해서는 東京大學史料編纂所·長崎縣立長崎圖書館이 사진관을 제작·공개하고 있다(후자는 長崎歷史文化博物館架藏). 未飜刻 혹은 宗家判物寫의 미수록 사료도 적지 않다.

禪僧 사료로는 天荊의 사행록인 <右武衛殿朝鮮渡海雜藁>[田中 1915] 및 <朝鮮國往還日記>, 景轍玄蘇의 유고집 《仙巢稿》, 規伯玄方の 저작 《家康公命和睦朝鮮對馬送使約條并對馬私記》[田代·李 2000]가 있다.

이어서 對馬 이외의 일본 사료 중 중요한 것으로는 <尊海渡海日記>(《廣島縣史》 중 세자료편 3, [中村 1963]), <島井文書>(《福岡縣史》 近世史料編福岡藩町方 1), <大友文書>(《增補訂正編年大友史料》), <由比文書>(《西國武士團關係史料集》 14), 《善隣國寶紀》[田中 1995], 《異國出契》, 《武家諸法式》 등이 있다. 또한 호피·표피 등의 조선산 물품(<唐物>)의 유통상황을 추적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광범위한 사료를 博搜해야 할 것이다.

3. 외교문서

외교문서(서계·문인)의 양식론·형태론적 검토를 시도한 것으로서 [伊藤 2002c][米谷 2002a·2002b]이 있으며, 料紙·서체·문언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되어 있고, 특히

외교문서의 진위 판정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 외교문서에 날인된 圖書(證明印)에 대해서는 宗家舊藏의 圖書 및 木印(木製偽造印)을 소개한 [田代·米谷 1995]가 있다.

16세기 日朝교류는 ‘무역권의 對馬 집중’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 사료 속에 보이는 對馬 사료의 비중이 매우 크다. 對馬 사료 중에도 未飜刻 사료(宗家物寫·家文書·禪僧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자화 작업과 여러 사본과의 對校작업 등 기본적인 작업이 필수이며, 이러한 작업에 근거로 조선 사료와 비교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맺음말

지금까지 16세기 일조교류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를 시도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과제를 제시해 두고자 한다.

15세기 일조교류사연구에 있어서는 《조선왕조실록》의 일본관계 기사가 풍부하지만, 일본 사료는 단편적이며 점수도 적다는 사료의 편재성이 있다. 한편 16세기 일조교류사 연구에 있어서는 《조선왕조실록》의 일본관계 기사가 질·양 모두 적으며, 일본사료, 특히 對馬 사료가 다수 잔존하고 있다는 편재성이 있다. 즉 15세기 일조교류사상은 조선 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16세기 일조교류사의 像은 對馬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15세기와 16세기는 일조교류사의 像에 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격차가 실상을 반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료의 편재성에 幻惑된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사료(對馬 사료)·조선 사료의 博搜와 비교 검토가 필수요건이 된다. 그러한 기초작업과 함께 방법론을 단련하는 것으로 16세기 일조교류사와 15세기 일조교류사의 연속성·비연속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또 16세기 일조교류사와 17세기 전반 일조교류사의 연속성·비연속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秋田洋一郎, 2007 <一六世紀石見銀山と灰吹法伝達者慶壽禪門>(《ヒストリア》 207)
- 荒木和憲, 2003 <中世後期における對馬宗氏の特送船>(《九州史學》 135, 荒木 2007)
- 荒木和憲, 2005 <中世對馬の朝鮮貿易と領國經濟>(《韓國研究センター年報》 5, 荒木 2007)
- 荒木和憲, 2007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山川出版社)
- 伊藤幸司, 1999a <中世後期の臨濟宗幻住派と對外交流>(《史學雜誌》 108-4, 伊藤 2002a)
- 伊藤幸司, 1999b <一五・一六世紀の日明・日朝交渉と夢窓派華藏門派>(《朝鮮學報》 171, 伊藤 2002a)
- 伊藤幸司, 2002a 《中世日本の外交と禪宗》(吉川弘文館)
- 伊藤幸司, 2002b <中世後期における對馬宗氏の外交僧>(《年報朝鮮學》 8)
- 伊藤幸司, 2002c <現存史料からみた日朝外交文書・書契>(《九州史學》 132)
- 伊藤幸司, 2005 <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の時代>(《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 第二分科)
- 榎本涉, 2007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吉川弘文館)
- 大西信行, 2002 <16世紀朝鮮半島における倭銀の流通とその條件>(石見銀山歴史文獻調査団 編, 《石見銀山(研究論文篇)》(思文閣出版))
- 長節子, 1982 <十六世紀對馬の朝鮮通交獨占体制の一考察>(《村上四男博士和歌山大學退官記念朝鮮史論文集》(開明書院) 長 1987)
- 長節子, 1987 《中世日朝關係と對馬》(吉川弘文館)
- 長節子, 1993 <興利倭船の研究>(《朝鮮學報》 146, 長 2002)
- 長節子, 1997 <一五世紀後半の日朝貿易の形態>(中村質 編, 《鎖國と國際關係》(吉川弘文館))
- 長節子, 2002 《中世 國境海域の倭と朝鮮》(吉川弘文館)
- 長節子, 2006 <壬申約條後の釜山浦再開港時期について>(李泰勳과의 共著論文 <朝鮮前期の浦所に關する考察> 第2章, 《九州産業大學國際文化學部紀要》 34)
- 長節子, 2007 <壬申・丁未約條接待停止深處倭に關する考察>(《年報朝鮮學》 10)
- 長正統, 1963 <景轍玄蘇について>(《朝鮮學報》 29)
- 長正統, 1968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の史料的性格>(《朝鮮學報》 33)
- 韓文鍾, 2006 <14~16世紀の三浦地域と日本>(森川哲雄・佐伯弘次編 《內陸圈・海域圈交流ネットワークとイスラム》(權歌書房))
- 金永徽, 1997 《朝日綿布貿易と綿業の展開》(溪水社)
- 金光哲, 2001 <對馬の僞使・日本國王使>(《東アジア研究》 33)
- 黒田省三, 1971 <中世對馬の知行形態と朝鮮貿易權>(《國土館大學人文學部紀要》 3)
- 桑野榮治, 2007 <朝鮮中宗代における對明遙拜儀禮>(《久留米大學文學部紀要》 國際文化 學科編 24)
- 小島鉦作, 1965 <筑前宗像氏の海外通交貿易に關する考察>(《成蹊大學政治經濟論叢》 15-3)
- 小葉田淳, 1932a <中世後半期における日鮮金銀貿易の研究>(《史學雜誌》 43-6, 小葉田 1976)
- 小葉田淳, 1932b <中世における日鮮銅貿易の研究>(《社會經濟史學》 2-6, 小葉田 1976)
- 小葉田淳, 1976 《金銀貿易史の研究》(法政大學出版局)
- 崔相振, 2003 <<三浦の亂>以降, 三浦から釜山浦に一元化される過程>(《韓國言語文化研究》 5)
- 佐伯弘次, 1994 <中世後期の宗像氏と朝鮮>(川添昭二・網野善彦 編, 《中世の海人と東アジア》(海鳥社))

- 佐伯弘次, 2000 <對馬宗家文書の中世史料>(《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44)
- 佐伯弘次, 2004 <中世日朝間の約條>(村井章介編 《8-17世紀の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人・物・情報の交流》 下, 科學研究費報告書)
- 佐伯弘次・水野哲雄・三村講介・荒木和憲・岡松仁・岩成俊策・大塚俊司・松尾弘毅・八木直樹, 2006 <《海東諸國紀》日本人通交者の個別的檢討>(《東アジアと日本》 3)
- 佐伯弘次・有川宜博, 2002 <大山小田文書>(《九州史學》 132)
- 櫻井英治, 1996 《日本中世の經濟構造》(岩波書店)
- 須田牧子, 2007 <漢文史料の収集分析と大日本史料について>(保谷徹 編, 《前近代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關係史料の研究》 2003~2006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研究成果報告書, 2007年3月)
- 關周一, 1991 <壹岐・五島の交流と朝鮮>(《年報中世史研究》 16, 關 2002)
- 關周一, 1992 <香料の道と日本・朝鮮>(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3)
- 關周一, 2002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吉川弘文館)
- 孫承喆, 2002 <韓國における前近代日韓關係史料研究>(東京大學史料編纂所 編・刊, 《前近代日本の史料遺産プロジェクト研究集會報告集》)
- 高橋公明, 1989 <十六世紀の朝鮮・對馬・東アジア海域>(加藤榮一・北島万次・深谷克己, 《幕藩制國家と異域・異國》(校倉書房))
- 武田勝藏, 1926 <宗家文書の中より(一)>(《史學》 5-3)
-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創文社)
- 田代和生・米谷均, 1995 <宗家旧藏 《図書》と木印>(《朝鮮學報》 156)
- 田代和生・李薰, 2000 《朝鮮通信使記錄》 別冊下(ゆまに書房)
- 田代和生・六反田豊・吉田光男・伊藤幸司・橋本雄・米谷均, 2005 <僞使>(《日韓歷史共同研究報告書》 第二分科)
- 田中健夫, 1954 <中世日鮮交通における貿易權の推移>(《史學雜誌》 63-3, 田中 1959)
- 田中健夫, 1955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九州史料叢書》 3, 田中 1982)
- 田中健夫, 1959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
- 田中健夫, 1961 《島井宗室》(吉川弘文館)
- 田中健夫, 1962 <《吉見》の図書について>(《朝鮮學報》 25, 田中 1975)
- 田中健夫, 1964 <島井宗室と景轍玄蘇>(《日本歷史》 1964, 田中 1982)
- 田中健夫, 1975 《中世對外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 田中健夫, 1976 <大永享祿之比御狀并書狀之跡付>(《朝鮮學報》 80, 田中 1982)
- 田中健夫, 1977 <朝鮮の鷹>(《日本歷史》 344, 田中 1982)
- 田中健夫, 1982 《對外關係と文化交流》(思文閣出版)
- 田中健夫, 1987(編) 《前近代の國際交流と外交文書》(吉川弘文館)
- 田中健夫, 1995 《譯注善隣國宝記・續善隣國宝記》(集英社)
- 田中健夫・田代和生, 1978(校訂) 《朝鮮通交大紀》(名著出版)
- 田中義成, 1915 《右武衛殿朝鮮渡海之雜藁》(古書珍書刊行會)
- 中村榮孝, 1952 <一五一〇年朝鮮三浦における日本人の爭亂>(《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2, 中村 1965)
- 中村榮孝, 1963 <《尊海渡海日記》について>(田山方南先生華甲記念會 編・刊, 《田山方南 先生華甲記念論文集》, 中村 1965)

- 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吉川弘文館)
- 中村榮孝, 1966 《日本と朝鮮》 (至文堂)
- 中村榮孝, 1969a 《日鮮關係史の研究》 下 (吉川弘文館)
- 中村榮孝, 1969b <十六世紀朝鮮の對日約條更定> (中村 1969a)
- 西村圭子, 1984 <對馬宗氏の 《諸家引着》覺書>(《日本女子大學文學部紀要》 34)
- 橋本雄, 1997 <室町・戰國期の將軍權力と外交權>(《歷史學研究》 708, 橋本 2005)
- 橋本雄, 2005 《中世日本の國際關係》 (吉川弘文館)
- 増田勝機, 1990 <中世薩摩の對外交渉>(大林太良 編, 《隼人世界の島々》 <海と列島文化5> 小學館)
- 松尾弘毅, 2004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五島諸氏と通交体制>(《東アジアと日本》 1)
- 村井章介, 1987 <朝鮮に大藏經を求請した僞使について>(田中健夫, 1987 ; 村井 1988)
- 村井章介, 1988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 村井章介, 1990 <十五・十六世紀の地域間交流と三浦の亂>(《歷史科學》 122)
- 村井章介, 1993a 《中世倭人伝》 (岩波書店)
- 村井章介, 1993b <三浦の鎮城と關限>(《青丘學術論集》 3, 村井 1997)
- 村井章介, 1995 《東アジア往還》 (朝日新聞社)
- 村井章介, 1995 <三浦の亂時のソウル倭館>(田中健夫 編,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村井 1997)
- 村井章介, 1997 《國境を超えて》 (校倉書房)
- 村井章介, 1996 <中世倭人と日本銀>(竹内實・村井章介・川勝平太・清水元・高谷好一 編, 《日本史を海から洗う》 南風社)
- 村井章介, 1999 <壬辰倭亂の歴史的前提>(《歷史評論》 592)
- 森克己, 1951 <中世末・近世初頭における對馬宗氏の朝鮮貿易>(《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1, 森 1975)
- 米谷均, 1997a <一六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派遣の構造と實態>(《歷史學研究》 697)
- 米谷均, 1997b <漂流民送還と情報伝達からみた16世紀の日朝關係>(《歷史評論》 572)
- 米谷均, 1998a <中世後期, 日本人朝鮮渡海僧の記録類について>(《青丘學術論叢》 12)
- 米谷均, 1998b <東大史料編纂所架藏 《日本關係朝鮮史料》>(《古文書研究》 48)
- 米谷均, 2002a <文書様式論から見た一六世紀の日朝往復書契>(《九州史學》 132)
- 米谷均, 2002b <一五七二年の對馬宗氏あて禮曹參議書契について>(《九州史學》 132)
- 山内晋次, 2003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 (吉川弘文館)